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②	5	③
6	③	7	②	8	①	9	①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⑤	15	④
16	②	17	⑤	18	⑤	19	③	20	⑤
21	④	22	⑤	23	②				

해 설

1. 정답: ①
출제 의도: 지문 1·2 문단에서 제시된 파이토크롬의 광가역성 범위(적·원적색 한정) 및 두 형태 전환의 생리적 의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내용과 상충하는 설명을 선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①: 지문은 파이토크롬이 적색(≈660 nm)과 원적색(≈730 nm) 파장에서 특이적 흡광을 통해 Pr↔Pfr 전환이 일어난다고만 설명한다. '청색광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단정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지문 내용과 불일치한다.
오답 해설
② 지문 2 문단: 색소 이중결합의 Z→E 전환 → 단백질 입체 재배열 → 신호 전달 부위 노출.
③ 지문 2 문단: Pfr이 활성형이므로 Pr → Pfr 전환이 발아·생장 유발의 전제.
④ 지문 3 문단: 그늘(원적색 비율↑) → Pfr↓ → 줄기 신장(음지 회피) ↑.
⑤ 지문 4·5 문단: 파이토크롬은 광질과 야간 탈활성화(밤 길이) 모두 감지.

2. 정답: ②
출제 의도: <보기>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빛 조사 순서가 최종 Pfr 비율·발아율을 결정한다는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조건(FR→R)**에 대한 발아율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②: 지문·<보기> 모두 "마지막에 R을 조사하면 Pfr 비율↑ → 발아 촉진"을 보여 준다. FR→R은 <보기> ③(R→FR→R)의 마지막 두 단계와 동일하므로 발아율이 80 %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오답 해설
① FR 뒤에 R이 있으므로 Pfr이 지속 감소한다는 전제부터 틀림.
③ "Pr 효과 유지" 가설은 <보기> ③이 발아율 88 %를 보인 사실과 모순.
④ "생리활성 물질 소모"만으로는 FR 뒤 R 처리 효과를 설명 못 함.
⑤ R→FR(발아 8 %)과 동일할 근거 없음—순서가 다르다.

3. 정답: ③
출제 의도: 연구팀 B의 대안 가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들 중, 지문 정보와의 관련성이 가장 약한 근거를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③: 야간 탈활성화 속도(Pr ← Pfr)는 지문 5 문단에서 광주기 반응 설명에만 쓰였으며, <보기>의 단기간 빛 처리 실험 변수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그러므로 연구팀 B 반박 근거로는 부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지문 2 문단: Pfr 변화가 즉각적→ 빛 순서 중요 → B 가설 반박 가능.
② <보기> ③: R→FR→R에서 발아 회복 → "물질 소모" 가설 부적합.
④ 지문 3 문단: 발아는 호르몬 등 복합 요인 → 단일 요인 해석의 한계 지적 가능.
⑤ 지문 3 문단 & <보기>: 광 질 순서가 핵심 → "총 R 조사량"만 중시하면 가역성 간과.

4. 정답: ②
출제 의도: 지문 1 문단의 "분자 스위치" 은유를 문맥상 의미로 해석하고, 같은 개념을 가장 잘 포착한 설명을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②: Pr↔Pfr 가역 전환이 빛 자극에 따라 반복되며 발아(ON/OFF)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스위치'와 대응.
오답 해설
① "불가역 전환"은 가역성과 배치.
③ 단순 농도 유지 기능은 지문과 무관.
④ 배터리(에너지 저장) 비유 없음.
⑤ 단백질 합성 촉진은 파이토크롬 2차 현상으로 직접 대응 아님.

5. 정답: ③
출제 의도: 지문 5 문단의 야간 탈활성화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춘 돌연변이의 개화 시기 변화를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해설:
정답 해설 ③: 야간 탈활성화가 느려지면 밤에도 Pfr이 많이 남아 '밤 길이 과소평가' 오류 발생 → 광주기 의존 개화가 지연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밤사이 Pfr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전제와 반대여서 틀림.
② 장일성/단일성 식물 간 개화 방향 설명이 지문 논리와 불일치.
④ 낮 동안 Pr→Pfr 전환 속도는 변함없어 광합성과 직접 무관.
⑤ Pfr 잔존은 광질 해석에도 일부 영향 가능—'무관' 단정 부적절.

6.
정답 번호: ③
출제 의도: 지문에 제시된 '집단 기억과 서사'에 관한 핵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리쾨르와 아스만의 이론에서 각각 강조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답 해설: ③은 지문의 핵심 주장과 부합하는 선택지이다. 지문에 따르면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공유되고 해석됨으로써 집단적인 서사로 엮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집단 기억은 단순히 여러 사람의 기억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서사를 통해 과거 경험들을 재구성하여 집단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실제로 지문에서는 "기억은 개인에 속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여 개인 기억이 공동의 이야기로 엮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③의 진술대로 집단 기억이 사회적 맥락 속 서사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이러한 지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오답 해설:
① 지문 내용을 정반대로 이해한 선택지이다. 리쾨르의 이론 부분에서 집단 기억을 별도의 실체로 간주하는 견해를 경계하고 있다. 지문은 집단 기억을 개인의 기억과 분리된 독자적 실체로 취급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며, 오히려 개인들의 기억이 상호주관적 관계망 속에서 연결된 결과로서 집단 기억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집단 기억이 개인 기억과 무관한 별개의 실체라고 서술한 ①은 지문과 어긋난다.
② 아스만의 이론을 잘못 이해한 선택지이다. 지문에서 아스만은 집단 기억의 유지에 매체와 제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실제 지문에는 "기억은 철저하게 이러한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문자•그림•기념물 같은 외부 매체 없이는 장기적인 기억 공유가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기억이 전달된다"는 식으로 서술된 ②는 지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지문에 따르면 리쾨르는 서사가 기억을 구성하는 핵심 방식이라고 보았다. 과거의 경험을 서사로 엮어낼 때 집단적 기억이 형성되고 의미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④는 집단 기억에 서사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어, 리쾨르의 관점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지문의 설명처럼 "과거의 경험들은 서사로 재구성될 때 비로소 공동체적 의미를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④는 옳지 않은 선택지이다.
⑤ 아스만의 이론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오답이다. 아스만은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기억(기능적 기억)뿐 아니라 당장은 쓰이지 않고 보관되는 기억(저장 기억)의 층위도 구분하여 논의한다. 지문에서도 아스만이 집단 기억 내에 이러한 활용과 보존의 이중 구조가 있음을 언급했는데, 이는 필요하지 않은 과거라도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저장해 둔다고 보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⑤처럼 "현재 쓰이지 않는 기억은 집단 기억에서 배제된다"는 식의 서술은 아스만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답이다.

7.
정답 번호: ②
출제 의도: 주어진 사례(보기)를 지문의 이론적 내용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지문에서 제시된 개념(특히 아스만의 기억 유형 구분 등)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답 해설: 보기에 제시된 사례는 한 공동체가 과거의 큰 화재 사건을 생존자들의 증언과 기념행사를 통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례를 지문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구전으로 전하는 부분은 아스만이 말한 '소통적 기억'에 해당한다. 소통적 기억은 살아 있는 세대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전달되는 기억으로, 여기서는 화재를 겪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자녀 세대에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매년 열리는 화재 사건 기념행사와 지역 박물관의 유물 전시는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이란 문자 기록, 의례, 기념물 등 매체를 통해 오랫동안 보존되는 기억이므로, 이 공동체가 행사를 열고 유물을 전시하여 사건을 기리는 행위가 그에 속한다. 지문은 이러한 아스만의 개념을 통해, 시간이 흘러 생존자가 모두 사라진 후에도 외부 매체를 통한 기억의 유지가 공동체의 과거를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사례를 소통적 기억에서 문화적 기억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해석한 ②의 선택지가 옳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상황에 대한 개념 적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매년 열리는 기념행사는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직접 겪지 않은 사건을 의례화하여 전승하는 것이므로, 이는 아스만의 분류상 문화적 기억에 가깝다. 그런데 ①은 이 기념행사를 소통적 기억의 사례로 잘못 지칭하고 있다. 소통적 기억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직접 경험에 기반한 구전인데, 기념행사는 세대가 지나도 이어질 수 있는 공식 의례이다. 따라서 ①의 해석은 부정확하다.

③ 지문의 리쾨르 관점을 혼동한 오답이다. 리쾨르는 집단 기억이 서사를 통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기의 공동체는 이미 화재 사건을 이야기와 의례로 서사화하여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은 해당 기억에 서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듯한 전제를 하고 있다. 지문에서 리쾨르는 서사가 기억에 의미를 부여해 공동체를 결속한다고 설명했으므로, 이미 서사적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례를 두고 "서사가 없어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③은 지문 내용에 어긋난다.

④ 아스만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선택지이다. 생존자들의 구술 증언은 아스만 이론에서 소통적 기억의 전형적인 예이다. 지문에서도 아스만은 직접 경험한 세대의 기억 전승을 소통적 기억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④에서는 이러한 구술 증언을 문화적 기억이라고 잘못 분류하고 있다. 문화적 기억은 문헌이나 기념물처럼 물질적 형태로 오랜 시간 보존되는 기억을 뜻하므로, 생존자들의 직접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지문에 제시된 개념 구분과 맞지 않는 설명이다.

⑤ 보기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이다. 지문에 따르면, 생존자가 사라진 후에도 기억을 잇기 위해 문화적 기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공동체가 박물관을 세우고 기념행사를 마련하는 이유는 후대에도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⑤는 현재 이루어지는 노력들이 일시적이며 결국 기억이 사라질 것이라는 뉘앙스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지문의 취지와 반대로, 문화적 기억의 역할을 간과한 설명이다. 지문은 오히려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집단 기억이 지속됨을 강조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①

출제 의도:

지문에 등장하는 리쾨르와 아스만의 이론을 비교하고, 각 이론이 강조하는 핵심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답 해설:

①은 리쾨르가 서사를 통한 기억의 구성에 초점을 두고, 아스만은 문화적 매체(기념비, 기록 등)를 통한 기억의 구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학자의 관점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였다. 지문에서 리쾨르는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통해 개인이 기억을 이야기로 엮는 과정을 중시하며, 아스만은 집단 기억이 제도적, 문화적 방식으로 보존된다는 점을 부각한다.

오답 해설:

② 리쾨르의 '서사적 정체성'과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개념이 뒤바뀜.

③ 두 학자 모두 기억을 수동적 축적으로 보지 않고, 능동적 해석과 구성의 결과로 본다.

④ 아스만 역시 개인 기억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집단 기억으로 전환된다고 보므로, '개인 서사가 영향 없다'는 주장은 부적절.

⑤ 기억을 단순 저장으로 보는 관점은 두 학자 모두 공유하지 않으며, 모두 능동적 구성 과정을 중시함.

9.

정답: ①

출제 의도:

지문 내 개념어 '서사적 정체성'이 사용된 문맥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설명한 진술을 고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답 해설:

①은 서사적 정체성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얻은 정체성"으로 설명하여, 지문에서 리쾨르가 말한 '서사를 통한 자기 이해의 구성'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시간 속에서 이야기로 엮음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② 문학 작품 내 서술 방식은 지문의 개념과 무관함.

③ 집단의 역사에 근거한 신분 개념은 '정체성'의 서사적 구성과 다름.

④ 서사적 정체성은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며, '불변성'과는 관계 없음.

⑤ 단순한 사실 나열은 '의미 부여'라는 서사의 본질을 반영하지 않음.

10. 정답: ④

해설: ④는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과 부합한다. 지문에 따르면 "AMOC는 해류의 원동력이 일정 수준 이상 약화되면 갑자기 크게 약화되거나 아예 정지할 수 있다"고 하여 ④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지문에서는 임계점을 넘으면 기후 시스템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바뀌어 버린다"고 했으므로, 임계점 이후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쉽게 복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아마존 열대우림의 자기 강우 순환 붕괴는 산림 감소가 임계 수준에 이를 때 촉발되는 것으로, 지문에서 약 20~25% 숲이 사라지면 위험하다고 했다. 파괴 초기 단계부터 급변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②는 잘못되었다.

③ 해빙 면적 감소는 태양 에너지 흡수량 증가로 이어져 북극 지역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흡수가 감소한다"는 ③의 내용은 지문의 설명과 반대이다.

⑤ 티핑포인트 현상에서는 임계점 이전까지는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임계점을 넘은 후에 급격해지는 것이 핵심이다. 임계점 이전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⑤의 진술은 틀렸다.

11.

정답: ①

해설: 지문에서 티핑포인트를 한 번 넘어서면 생태계가 비가역적 변화를 겪는다고 했으므로, ①의 내용처럼 아마존 숲이 일단 사바나로 바뀌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움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② 지문은 기후 티핑포인트가 자연적 요인으로도 발생 가능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마지막 빙하기 동안 AMOC가 급격히 전환되어 기후가 갑자기 냉각된 사례"처럼,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게도 티핑포인트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따라서 ②는 단정할 수 없다.

③ 지문은 오히려 티핑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의 불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작은 추가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티핑 요소들이 연계되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까지 제시된 만큼, 임계점에 도달하는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③은 지문 취지에 맞지 않다.

④ 지문에 따르면 AMOC의 정지는 북유럽뿐 아니라 "북반구 지역의 기후 패턴"과 "전 지구의 강우 분포와 해양 생태계"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영향을 북유럽에 한정한 ④는 옳지 않다.

⑤ 지문에서는 하나의 티핑포인트가 다른 티핑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며, 필연적으로 모든 티핑 요소가 연달아 붕괴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⑤도 부적절하다.

12.

정답: ②

해설: ②는 일정 기간 천천히 진행되던 변화(영양분 축적)가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며 호수 생태계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지문에서 설명한 티핑포인트 현상의 특징과 부합한다.

① 전류 증가에 따른 전구 밝기의 증가는 투입에 비례하여 서서히 이루어진 변화로, 임계점을 넘은 급격한 전환이 아니다.

③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해양 산성도의 상승은 완만하고 연속적인 변화로 묘사되어 있으며, 갑작스러운 체계 변화가 나타나는 티핑포인트 사례가 아니다.

④ 바람 세기와 나무 흔들림의 정도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선형적 변화에 해당하며, 임계점 돌파 후 급격한 변화가 아니다.

⑤ 빙하가 녹는 양이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은 꾸준한 추세적

변화일 뿐, 티핑포인트처럼 특정 시점에 변화 양상이 폭발적으로 바뀐 사례가 아니다.

13.

정답: ①

해설: ①은 지문 필자와 [보기]의 A 학자 관점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지적한다. A 학자는 [보기]에서 기후 변화가 "웬만한 변화로는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점진적이고 가역적인 변화를 주장한다. 반면 지문 필자는 작은 변화가 임계점을 넘으면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아 두 관점이 대조된다.

②는 사실과 반대로 진술되었다. [보기]에서 A 학자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을 오히려 낮게 보는데, 지문 필자는 그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지문 필자는 임계점 돌파 이후에는 인간의 대응으로 막기 힘든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A 학자는 환경 복원으로 원상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두 사람이 모두 "인간의 대응으로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④ 지문 필자는 여러 티핑 요소들의 "연계되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호 작용을 우려한다. 그러나 A 학자는 티핑포인트 개념이 과장되었다고 보아 이런 연쇄적 발생 가능성에도 회의적일 것이다. 진술에서 필자와 A의 입장이 뒤바뀌어 있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⑤ 역시 필자와 A 학자의 입장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지문 필자는 기후 체계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티핑포인트 돌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A 학자는 오히려 기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⑤는 틀린 설명이다.

14.

정답: ⑤

해설: [보기]의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원래 면적의 20%가 줄어든 상태다. 지문에서는 약 20~25%의 삼림 손실이 임계점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아마존은 현재 세 가지 중 임계점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⑤의 진술은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① 아마존 숲의 20% 감소는 아직 추정된 임계치 범위에 해당하지만, 완전히 티핑포인트를 넘어 사바나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은 과장된 해석이다.

② 북극 해빙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미 반사능력이 크게 상실되어 북극 지역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큰 문제가 없다"는 ②의 주장은 지문 내용과 상반된다.

③ AMOC의 15% 약화는 최근 연구에서 관측된 유의미한 변화로,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③은 부적절하다. 지문은 AMOC 약화가 지속될 경우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현재의 약화 추세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④ 아마존 열대우림이 임계점에 근접한 정도(20% 감소)를 고려하면, 북극 해빙의 감소폭(50% 감소)이 상대적으로 크더라도 곧바로 티핑 임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여름철 완전 소멸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마존보다 북극 해빙이 임계점에 더 가깝다는 ④의 판단은 옳지 않다.

⑤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보기에 제시된 수치와 지문 정보를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이다.

15.

정답: ④ (ㄱ, ㄷ)

해설: ㄱ과 ㄷ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꾸준한 초과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ㄱ), 행동 재무학 등 반대 관점에서는 투자자의 비합리성으로 시장에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ㄷ). 한편 ㄴ은 지문과 다르다. 지문에서는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장 현실적인 가설로 언급하며, 정보 공유와 규제를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ㄴ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16.

정답: ②

해설: 보기의 상황은 호재성 정보가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지문에서 설명한 투자자들의 과소 반응에 해당한다. 새로운 정보에 시장 참여자들이 지체하여 반응하면 주가 상승이 늦게 이루어지므로, A가 다음 날 주식을 사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①의 설명은 효율적 시장 가설 측 입장이지만, 지문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③은 제시된 뉴스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는 점에서 틀렸고, ④와 ⑤ 역시 지문에서 설명한 효율적 시장의 전제 조건이나 맥락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17.

정답: ⑤

해설: 지문에 따르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옹호하는 측은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측은 투자자의 심리적 편향과 비이성적인 행태로 인해 정보의 가격 반영 과정에 왜곡이 생기고, 그 결과 모멘텀이나 거품 같은 일시적 이상 현상과 초과 이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합리적 정보 반영 vs. 비이성적 심리에 의한 왜곡이라는 대비가 ⑤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다른 선택지들은 지문의 내용을 반대로 서술하거나 지나치게 극단화하여 잘못된 관점 대비를 보여준다.

18.

정답: ⑤

해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예측이나 전문성보다도 우연이나 운의 영향이 크다. 실제 지문에서도 “원숭이가 던진 다트가 고른 주식이 전문가의 선택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언급되어 있다. ⑤번 사례는 무작위 투자와 전문가의 성과를 비교한 것으로, 시장이 효율적일 때 전문가도 시장 평균을 크게 능가하기 어렵다는 지문의 취지와 잘 맞아떨어진다. 반면 ①, ③, ④와 같은 사례는 모두 특정한 투자 전략이나 개인이 꾸준히 시장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입장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일들이다. ②의 거품 형성 사례 역시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행동으로 일어난 시장 비효율의 예로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19.

정답: ③

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이 있어 정보가 불균등하게 공유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문에서도 준강형 효율적 시장의 전제 조건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야 한다”, 즉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들고 있다. ③의 내용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①과 ②는 정보의 내용이나 해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문맥이 다르고, ④는 정보의 처리 속도에 관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 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20.

정답: ⑤

출제 의도: 지문의 핵심 진술 파악 및 불일치 진술 식별 능력 평가. 특히 ‘인간 가치의 단일 보상 환원 불가능성’ 이해 여부를 점검.

문항 해설: 3문단에서 “인간의 다양한 가치는 단순히 하나의 숫자로 환원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단일 보상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선택지 ⑤는 이 진술과 배치되므로 정답.

오답 해설:

① 행동주의 예시는 1문단에 명시되어 일치.

② MDP의 마코프 특성상 현재 상태 기반 의사결정이 맞음(2문단).

③ 반복 상호 작용을 통한 규칙 학습은 2문단에 제시.

④ 공리주의의 공익 최대화 설명은 3문단에서 확인 가능.

21.

정답: ④

출제 의도: 강화학습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판단하는 능력 평가.

문항 해설: ④는 시행착오와 보상(출구 발견)을 통해 최적 경로를 학습하는 로봇 사례로, 지문이 제시한 강화학습 절차와 일치.

오답 해설:

① 내비게이션은 경로 ‘계산’이지 보상 기반 학습이 아님.

②는 고전적 조건형성 사례로, 능동적 보상 극대화 과정이 없음.

③는 정답 레이블이 있는 지도 학습 사례.

⑤는 암기에 의존한 해결로 보상 피드백 기반 학습이 아님.

22.

정답: ⑤

출제 의도: 지문에 제시된 '강화학습 ↔ 인간 의사결정' 대비 관점을 파악·비교하는 능력 평가.

문항 해설: 3·4문단에서 강화학습은 단일 보상 극대화, 인간은 복합 가치·경험 고려라고 대비. 이를 정확히 진술한 ⑤가 정답.

오답 해설:

① 강화학습은 오히려 과거 경로를 고려하지 않는다(MDP).

② 시행착오 없는 강화학습은 불가능.

③ 추상 가치의 단일 보상화가 어렵다고 지문에서 명시.

④ 체스·바둑 사례로 이미 인간 능가(4문단). '어느 분야에서든'은 과도한 일반화.

23.

정답: ②

출제 의도: '보기'의 구체적 상황을 지문 이론(할인율·누적 보상 개념)에 연결해 평가하는 적용·판단 능력 측정.

문항 해설: 할인율이 높을수록 가까운 미래 보상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한다. 보기가 설계한 '충전 거점 조기 복귀 추가 보상'은 배터리 부족 시 가까운 미래 보상을 우선시하도록 한 것으로, 할인된 누적 보상 극대화 원리를 반영(2문단).

오답 해설:

① '지도 학습과 동일'은 틀림. 지도 학습은 정답 레이블 기반, 강화학습은 보상 기반.

③ 로봇은 초기 무작위 탐색을 수행했으므로 전제부터 틀렸다.

④ 과거 경로의 세부 역사를 기억해야 마코프 위반이지만, 실제론 상태 가치만 축약.

⑤ 할인율·보상 구조상 합리적 선택이므로 '누적 보상 최적화에 위배'라는 평가는 부적절.

23.